

四天王寺의 密敎的 特性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Buddhist Esoteric characteristics of Sachunwangsa Buddhist Temple Site

저자
(Authors) 김상태, 박언곤
Kim Sang-Tae, Park Eon-Kon

출처
(Source)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4\)](#), 2004.4, 143-150 (8 pag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0\(4\)](#), 2004.4, 143-150 (8 pages)

발행처
(Publisher) [대한건축학회](#)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556675>

APA Style 김상태, 박언곤 (2004). 四天王寺의 密敎的 特性에 關한 研究.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4), 143-15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29 13:5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四天王寺의 密敎的 特性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Buddhist Esoteric characteristics of Sachunwangsa Buddhist Temple Site

김 상 태* 박 언 곤**

Kim, Sang-Tae Park, Eon-Kon

Abstract

Each buddhist temple expresses its own dogmatic ideology.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Esoteric Buddhism became widely accepted since it was embraced by both the Zen and the Dogmatic Buddhism. The ideology of the Esoteric Buddhism, which started out with the triangular composition, uses the geometric elements of circles, squares, half circles, and triangles which forms the Cosmos, to complete the Mandala image. Because Esoteric Buddhism and the two pagoda buddhist temple(Sachunwangsa Buddhist Temple Site) started to appear around the same period, we might be able to find the compositional elements of the two pagoda buddhist temple that remains unknown to these days.

키워드 : 사천왕사, 가람(사찰), 밀교, 2탑식 가람, 만다라, 교리, 도상

Keywords : Sachunwangsa Buddhist Temple, Esoteric Buddhism, Buddhist Temple having the Two Pagodas, Dogma, Icon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가람은 372년에 이 땅에 전래된 이후 많은 종파가 생성되고 발전하면서 통합이 되거나 사라지는 불교의 흥·망에 따라 배치나 공간구성의 개념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탑과 금당과의 관계는 초기의 불교전래기에 가장 중요한 가람의 구성요소였다. 탑이 하나로 시작되는 1탑식의 가람배치가 통일신라시기에 2탑식으로 변화되었는데, 현재 2탑의 변화과정과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출발은 삼국유사에 나타난 사천왕사와 밀교고승인 명랑법사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다.

밀교는 영어는 Esoteric Buddhism 혹은 Buddhist Esoterism으로 불교계에서는 이미 인정되는 종파이다. 밀교는 불교도입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교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데 밀교의 수행방법으로 그리는 도학으로 알려져 있는 만다라, 다라니(진언, 총지), 결인 등 불교수행에 있어서의 많은 수법이 밀교에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밀교는 조선시대에 오면서 통폐합의 과정을 거쳐서서히 종파로서의 존립이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왔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최초의 밀교가람이면서 최초의 2탑식 가람인 사천왕사를 통하여 밀교가 한국사찰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밀교와 관련된 교리 및 도상과 2탑식

가람의 공간구성원리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밀교계 2탑식 가람인 사천왕사를 통하여 한국불교에서의 밀교의 성립과 전개 및 가람의 발전을 연구하면서 사천왕사의 창건과 관련된 왕 및 승려들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함께, 각 사찰에 적용된 불경의 교리적 분석을 통한 배치개념의 기초적 자료를 만든다. 교리의 적용은 밀교의 불경과 함께 밀교의 기본사상으로서의 도상인 만다라의 개념과 비교 분석하여 밀교와의 연관성을 도출한다. 이어 밀교가 가지는 특성과 사천왕사의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사천왕사의 밀교적 특성을 도출한다. 본 논문의 범위는 통일신라시기의 2탑식 가람이 생성되어 전개되는 7세기 중엽에서 8세기에 생성된 밀교계 사찰이자 신라 최초의 2탑식가람인 사천왕사를 주 대상으로 하여 망덕사, 원원사의 2탑식가람을 보조적 대상으로 한다.

2. 밀교의 개념과 사천왕사

2.1 밀교와 만다라

인도에서 생성된 밀교(esoteric buddhism¹⁾)는 인도에서

1) esoteric의 사전적의미는 “1.(선택된 소수에게만 전해지는) 비의(秘儀)의, 비의(秘儀)에 통달한 2.비의(秘儀)적인, 비밀(秘密)의, 심원한, 난해한-프라이미스”으로 esoteric buddhism 즉 밀교는 비의(秘儀)적인 불교(佛敎)라는 뜻이다.

* 홍익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불교세력이 약해질 때 그 당시 인도에서 강했던 종교인 바라문교(힌두교)의 영향과 민간신앙을 흡수하여 생성되었다. 밀교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신비스러운 행법(行法)을 지도함으로 기존의 여러 단계를 거처서 성불에 이르게 되는 행위로 가장 빠르게 성불에 이르게 만들게 한다. 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다라(mandala)²⁾인데, 밀교의 기본사상이 만다라에 모두 함축되어 나타나 있으며, 또한 밀교수행법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가 만다라를 익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밀교를 내용상 분류하면 시대적 비교와도 상통하는데 첫째는 잡밀(雜密:초기밀교)로서 체계화되지 않은 밀교이다. 잡밀의 특징은 주된 부처가 석가모니와 약사여래, 그리고 변화관음으로 치병(治病), 구아(求兒), 연명(延命)등의 현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만다라가 완성되어 있지 않는다, 둘째는 순밀(純密:중기밀교)로서 비로자나(대일여래)가 주불이 되며, 삼밀³⁾의 행법이 모두 종합적으로 구사하는 전신법이 완성되고, 즉신성불(卽身成佛)의 사상이 궁극목표이며, 만다라를 구현한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는 일반적 후기밀교라고 칭하는 탄트라 밀교로 8세기 인도에서 성립한 탄트라리즘(tantrism)의 전개와 더불어 생성된 탄트라불교이다. 성적(性的) 행법과 생리적(生理的) 행법이 도입된 불교로 유교적 성격이 강한 동아시아에서는 강한 거부감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⁴⁾ 탄트라불교는 후에 티베트밀교 혹은 라마교라고 알려지게 된다.

2.2 신라불교의 밀교수용

신라의 밀교는 인도에서 시작하여 중국에서 어느 정도 교학화된 상태의 밀교가 들어오게 되었다. 인도의 밀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밀교를 전파하는 인도승과 중국의 천축국(天竺國-인도)에 구법을 하려간 고승들에 의해 전래되었다. 신라의 밀교는 고려의 총지종(總持宗)과 신인종(神印宗)이 생성되는 10세기 중반이전까지 약 350년간의 시기 중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진다. 첫째 7세기초에서 8세기초반의 잡밀시기로, 자료에 의한 근거는 『해동고승전』에 진평왕27년(605년) 서역승인 비마라진체(毘摩羅眞諦), 농가타(農伽陀), 불타승가(佛陀僧伽)등이 신라 황룡사에 와서 『전단향화성광묘녀경』을 번역하였다는 기록과 『삼국유사』에서 진평왕때의 밀교승의 출현과 선덕여왕때의 밀본법사(密本法師)의 『약사경』 독송으로 여왕의 병을 치료했다는 기사가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문무대왕때의 명랑법사(明朗法師)의 신인비법으로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기록⁵⁾과 혜통⁶⁾의 신주행법(神呪行法)은 밀본법사의

2) 단어적 의미로 manda는 중심 또는 본질을 la는 소유를 의미하는 접미사로 합하면 본질을 얻는다라는 뜻이 된다.

3) 신밀(身密), 구밀(口密), 의밀(意密)로 신밀은 인상(印象)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고, 구밀은 진언(眞言) 즉 나라니(陀羅尼), 총지(總持)를 외우는 것이고, 의밀은 마음으로 명상(冥想)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삼밀행(三密行)이다.

4) 요미토미, 김무생譯, 『밀교의 역사와 문화』, 민족사, 1990

약사경⁷⁾에 의한 방법과 더불어 대표적 치병법(治病法)이 되었다. 성덕왕때의 명효(明曉)는 『불공견색다라니경』이라는 밀교경전을 번역하여 밀교의 체계화에 힘쓰게 되었다. 두번째 시기는 중국에서 선무외(善無畏)와 금강지(金剛智), 불공(不空), 혜과(惠果)의 밀교경전의 확립에 따른 순밀의 시기로 8세기에서 고려초 왕건의 신인종과 총지종의 건립때까지 입당구법승들의 중국유학을 통한 밀교의 도입 시기인데, 현초(玄超), 의림(義林), 불가사의(不可思議), 혜일(惠日), 오진(悟眞) 등은 그 당시 밀교계의 대두로서 모두 중국의 선무외와 금강지의 제자이면서 일본의 공해(空海)와 최징(最澄)의 스승이기도 하다. 또한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의 저자인 혜초(慧超)도 중국의 금강지의 제자로 경전번역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그 외 수많은 밀교승 들에 의하여 밀교는 발전하게 된다⁸⁾. 그러나 순밀시기의 밀교승들은 일본의 밀교승⁹⁾과는 다르게 중국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고, 신라로의 귀국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그런 연유는 현재로는 알 수 없으나, 잡밀이 흥했던 당시의 상황과의 관계로 추측된다¹⁰⁾. 이러한 신라밀교는 왕실및 귀족과 특이 연관이 많은데, 그 이유는 밀교의 특성상 나라를 지키고, 병을 고치며, 성불하게 되는 방법 중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통일이후의 밀교는 잡밀을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고려가 후삼국을 재통일 할 때 신라의 통일기와 마찬가지로 밀교의 주술적 호국사상을 도입하여 밀교가 종파(신인종과 총지종)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가지게 된다¹¹⁾.

2.3 사천왕사와 밀교사찰

명랑법사는 630년대 중반 당에 입국하여 밀교를 배운 뒤 신라에 귀국하여 금광사(金光寺)를 세우고 670년(문무왕10년) 당나라의 50만대군의 침입때에 비단으로 절(영역)을 세워 유가(瑜伽)수행이 뛰어난 12명의 승려를 뽑아 신인비법(神印秘法)¹²⁾으로 바람과 파도를 내어 당나라의 군대를 바다에 침몰하게 하였고, 다음해의 재침입때도 같은 방법으로 당나라의 5만군사를 물리치게 되었다. 이때의 비단으로 만든 절이 후에 문무왕19년인 679년 다시 세워진 사천왕사(四天王寺)이다. 사천왕사가 세워진 이후에 당나라의 고종이 사천왕사에 대한 의문을 묻고자 하

5) 『三國遺事』 卷二 紀異 第二 文虎王法敏條 와 三國遺事 卷五 神呪 第六 明朗神印條

6) 『三國遺事』 卷五 神呪 第六 惠通降龍 ...今和尙傳<無畏>之髓, 遍歷塵寰, 救人化物, 兼以宿命之明, 創寺雪怨, 密教之風, 於是乎大振.<天磨>之<總持岳>.<母岳>之<咒錫院>等, 皆其流裔也...

7) 『三國遺事』 卷五 神呪 第六 惠通降龍條

8)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연구』, 불광출판부, p.p. 67~75, 1994

9) 최징과 공해는 일본에 귀국하여 일본불교를 교착화시키는 장본인이 된다. 현재의 일본불교가 이들의 영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10) 명랑의 신인종, 혜통의 총지종 등이 고려초에 종파를 결성하지만 순밀의 종파는 결성되지 못한 점은 이를 암시하고 있다.

11)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한국밀교사상연구』, 농원문화사, p.p. 223~232, 1986

12) 문두루(文豆婁-Mūdra)작법이라고도 하며 그 작법은 『灌頂經』 12권, 제7경 『佛設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의 작법에 의해서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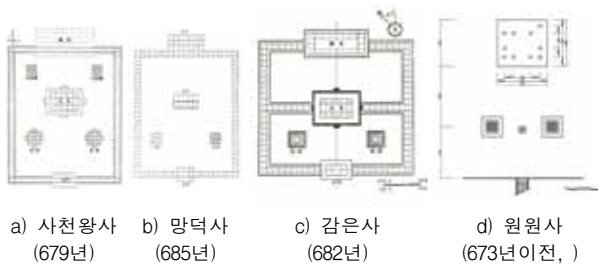


그림 1. 잡말시기의 2탑식가람의 배치비교

였을 때 사천왕사를 대신하여 망덕사(望德寺)¹³⁾를 지어 당시의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¹⁴⁾ 여기에서 나타난 사천왕사와 망덕사는 현재 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유적은 기존의 사찰들과 배치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기존의 1탑식 배치에서 탑이 2기가 나타나는 2탑식의 배치가 최초로 나타나는 유적지이다. 또한 사천왕사의 경우 2기의 경루가 금당 배면에 계획되어 앞의 두 탑과 대칭하여 배치된 것은 인도와 동남아에서 볼 수 있는 만다라형의 사원배치를 엿볼 수 있는 경우이다. 또 다른 2탑식가람으로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사찰로 감은사를 들 수 있다. 감은사는 문무왕이 망덕사를 조영하고 짓기 시작한 사찰인데, 감은사의 조영목적이 사천왕사와 매우 비슷한 점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사천왕사가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지은 사찰이라하면, 감은사는 왜(일본)의 침입을 막기 위한 사찰¹⁵⁾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밀교가람으로는 원원사(遠源寺, 遠願寺)를 들 수 있는데, 원원사는 앞에서의 사천왕사를 창건한 명랑법사의 직계후예인 안혜(安惠)와 낭융(朗融)과 김유신, 김의원, 김술중 등의 통일공신들이 함께 창건하였다. 이러한 창건의 목적에는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목적과 왜의 침입을 막고자하는 의미로서의 원원(遠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원원사 또한 2탑식으로 사천왕사와 감은사와 같은 배치의 모습을 하고 있고 특이한 것은 1층기단의 12지신상과 1층탑신의 사천왕상이 있어 밀교적 색채가 매우 강한 사찰이다. 이 원원사의 창건은 이미 사천왕사가 창건되기 이전이라 볼 수 있는데, 김유신이 발원을 한 점을 보아 김유신이 문무왕13년인 673년에 세상을 떠났고, 사천왕사가 679년에 세워졌으므로 금광사에 이어서 밀교가람으로서 초기의 모습을 보인다 할 수 있다. 탑의 생성시기는 일반적으로 8세기 중엽이후라 하는데, 이는 김유신장군상에서 보이는 12지신상의 모습과 비유하여 시기적 판단을 재판독할 여지가 남아있다.

13) 『三國史記』 卷 第八 新羅本紀 第八 神文王孝昭王聖德王 “神文王 五年春 復置完山州 以龍元爲總管 挺居列州以置靑州 始備九州 以大阿滄福世爲總管 三月 置西原小京以阿 滄元泰爲仕臣 置南原小京 徙諸州郡民戶分居之 奉聖寺成 夏四月 望德寺成”로 망덕사는 신문왕5년(685년)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 『三國遺事』 卷二 紀異 第二 文虎王法敏條 참조
 15) 『三國遺事』 卷二 紀異 第二 萬波息箇條 …爲聖孝<文武大王>創<感恩寺>於東海邊.(寺中記云, <文武王>欲鎮<倭>兵, 故始創此寺, 未畢而崩, 爲海龍. 其子<神文>立… 참조. 감은사는 문무왕이 짓기 시작하여 신문왕2년(682년)에 완성하였다.

2.4 역사서에 나타난 사천왕사

삼국유사에서 사천왕사에 대한 기록은 모두 5차례에 걸쳐 나타난다. 선덕왕에서부터 경덕왕에 이르기 까지 약 150년에 걸쳐 그 기사가 나타난다. 삼국유사는 불교관련 역사서로 건축적 기술보다는 역사적 현상과 인물에 대하여 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찰과는 다르게 사천왕사의 경우 문무왕조에 임시로 지은 사천왕사의 건립순서와 기법을 소개한 기사가 있어 그 건축적 표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삼국유사에 나온 사천왕사에 대한 기사로 건립의 계기와 건립순서에 관한 기사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문호왕법민조(文虎王法敏條)의 기사로

… <義相師>西學入<唐>, 來見<仁問>, <仁問>以事諭之, <相>乃東還上聞, 王甚憚之, 會群臣問防禦策. 角干<金天尊>曰: 『近有<明朝法師>入龍宮, 傳秘法以來, 請詔問之.』 <朗奏>曰: 『<狼山>之南有<神遊林>, 創<四天王寺>於其地, 開設道場則可矣.』 時有<貞州>使走報曰: 『<唐>兵無數至我境, 廻槩海上.』 王召<朗明>曰: 『事已逼至如何?』 <朗>曰: 『以彩帛假構矣.』 王以彩帛營寺, 草構五方神像, 以瑜珈明僧十二員, <朗明>爲上首, 作<文豆婁>秘密之法. 時, <唐>.<羅>兵未交接, 風濤怒起, <唐>舡皆沒於水. 後改朔寺, 名<四天王寺>, 至今不墜壇席.(《國史》大改朔在<調露>元年己卯.) … 16) 가 있다.

이러한 삼국유사 문무왕조의 기술은 사천왕사의 건립배경과 건립순서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특히, 밀교승인 명랑법사의 등장 과 함께, 절을 세울때 문두루라는 비법을 이용하여 절을 세웠다는 것으로 배치개념에 대하여 유추를 하여 볼 수 있음이 특징적이다.

또한 삼국사기에서의 사천왕사 또한 모두 4차례에 걸쳐 기사를 보이고 있다. 건립연대와 각종 사건 및 성전(成典)으로의 사천왕사를 소개할 뿐이지만, 아래의 기사를 통하여 보면 사천왕사를 성전(成典)으로 하여 국찰로서의 중요성을 열거함을 알 수 있다.

… 四天王寺成典 景德王改爲監四天王寺府 惠恭王復故衿荷臣一人 景德王改爲監令 惠恭王復稱衿荷臣 哀莊王又改爲令 位自大阿滄至角干爲之上堂一人 景德王改爲卿 惠恭王復稱上堂 哀莊王又改爲卿 位自奈麻至阿滄爲之赤位一人 景德王改爲監 惠恭王復稱赤位 靑位二人 景德王改爲主簿 惠恭王復稱靑位 哀莊王改爲大舍 省一人 位自舍知至奈麻爲之 史二人…¹⁷⁾

16) 이 글을 요약하여 보면, 670년 의상법사를 통한 당의 공격에 문무왕은 명랑법사에게 비법을 요청하여 낭산 남쪽 선덕여왕의 무덤 근처에 사천왕사를 가설(假設)하고 문두루법을 행하여 당의 군사를 풍랑으로 서해에서 물리치게 되었고, 후에 이 절을 제대로 지어 만든 것이 현재의 사천왕사이다, 이 때가 조로調露 원년元年 기묘己卯(679)의 일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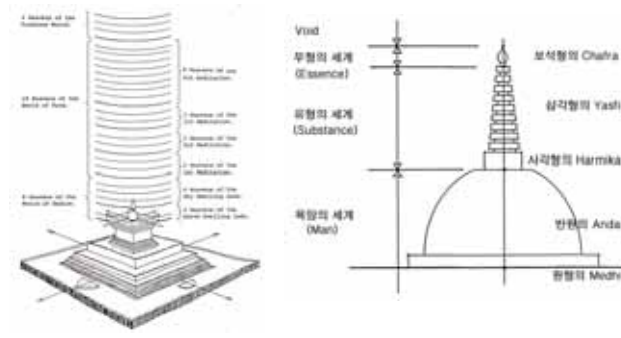
17) 『三國史記』 卷 第三十八 雜志 第七 職官 上的 四天王寺成典의 기술내용으로 경덕왕때 부터 각 사찰별로 건물의 수리나 행정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관서를 두었는데, 이는 사천왕사를 비롯하여 봉성사, 감은사, 봉덕사, 봉은사, 영흥사 등으로 사찰 성전의 관직은 예작부와 같은 제1위의 관등으로 두어 이들 사찰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3. 밀교의 세계관과 만다라 도상

3.1 밀교의 세계관

(1) 밀교의 우주론과 스투파개념¹⁸⁾

밀교의 우주론사상은 불교의 세계관을 묘사한 수미산 개념을 통하여 수직적 개념으로서의 공간구성으로 스투파를 구성하는 기본개념이 된다. 수미산개념을 형상화한 스투파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8등분하여 봉탑을 만들었고 이것이 불교도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에도 많은 스투파가 건립되어 예배의 대상 또는 봉헌(奉獻)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스투파의 기본형태는 지면에 놓여 기단의 기능을 하는 원형의 medhi, 기단 위에 반구형의 anda, anda의 정상에 상자모양의 사각형 harmika, 그리고 삼각형의 Yasfi와 보석형의 Chafra로 구성된다(그림2). Chafra와 Yasfi가 우산모습을 하게 됨은, 고대 인도에서는 우산이 매우 고귀하게 여겨져 권위의 상징적 도구로 인식된 데에 기인한다¹⁹⁾. Stupa의 기본요소는 표1에서 5가지의 도상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다.



a) 수미산개념도 b) 스투파개념도
그림2. 불교의 우주관(수미산과 스투파)

표1. 스투파의 도상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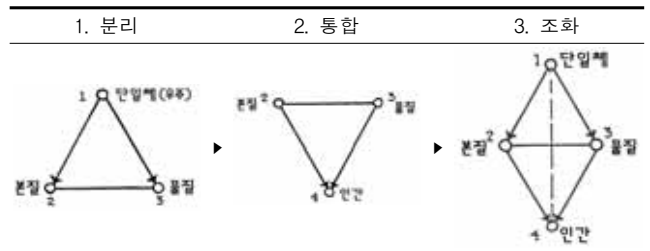
도상	4방형	원형	삼각형	반월형	보석형	
Stupa	의미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
	방위	南	中央	東	北	西
	색	황(黃)	백(白)	적(赤)	흑(黑)	청(靑)
	음절	a	va	ra	ha	kha
	불	보생불	비로자나불	아촉불	불공성취불	아미타불

(2) Adrian Snodgrass²⁰⁾의 우주론 해석

밀교의 도상인 만다라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단계에 걸친 발전 중에 다음의 밀교의 우주론과 스투파개념 및 만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p.72
 18) Adrian Snodgrass, 『THE SYMBOLISM OF THE STUPA』, Motilal Banarsidass publishes(India), 1992, p.p. 217~220
 19) 박언곤, 『한국건축사강론』, 문운당, 1998, p.p. 84~86
 20) Adrian Snodgrass는 건축사학자로 불교건축을 전공하였고, 현재 호주 시드니대학교의 건축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THE SYMBOLISM OF THE STUPA』, 『Architecture, time and eternity』, 『The Matrix and Diamond World mandalas in Shingon Buddhism』 등이 있다.

표2. 밀교의 우주관에 따른 분리와 통합



다라 도상법은 불교건축학자 Adrian Snodgrass²¹⁾의 이론을 바탕으로 전개하여 불교의 밀교적 사고관과 사천왕상을 비롯한 밀교사찰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논하였다.

밀교에서의 우주 곧 세상은 본질(Essence:보이지 않는 본질), 물질(Substance:보이는 실체)의 두 요소에 의한 조합과 파생으로 나타난다. 본질은 천상 곧 불국을 의미하고 물질은 형태가 존재하는 지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 요소는 단일체(Unity)에서 양극화되어서 분리된다. 하나가 둘이 되어 분리됨을 말한다. 분리된 본질과 물질은 하향적 방향의 성질을 가진 인간(Man)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게 된다. 첫 번째의 삼각형구도는 대립적 구도(분리)를 가지며 두 번째 삼각형은 통일(통합)의 의미를 가진다.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다른 세상이 아니다. 이 두 세계는 본질과 물질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조화에 의해 연결된다. 단일체와 인간은 양극화된 본질과 물질로 대칭을 이루어 연결되며, 하나로써 연결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향과 하향의 삼각구도는 조화(Cross)를 만들게 되고 조화의 개념²²⁾은 스투파의 구성원리의 기본이 된다(표2). 즉 본질은 천상을 의미하고 물질은 지상을 의미하며 두 공간의 중심에는 인간이 존재하여 두 공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사상은 천원지방(天圓地方)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양과 서양에서 나타나는 우주론적 개념과 일치한다(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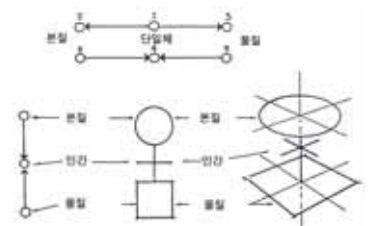


그림3. 스투파의 구성원리

3.2 만다라(Mandala)의 기본도형과 호마법

8세기 초반에 완성된 만다라는 태장계와 금강계의 두 계파로 나뉘어져서 2대 계보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계보는 중국을 거쳐 신라와 일본에 전해지게 되는데, 신라의 경우 교종과 선종의 발전과정에서의 각 계파로의 흡수가 이루어져서 그 명맥이 사라졌다. 잠밀시대의 건축과 만다

21) Adrian Snodgrass는 건축사학자로 불교건축을 전공하였고, 현재 호주 시드니대학교의 건축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THE SYMBOLISM OF THE STUPA』, 『Architecture, time and eternity』, 『The Matrix and Diamond World mandalas in Shingon Buddhism』 등이 있다.
 22) Cross의 개념은 밀교의 트리안트라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표3. 밀교의 호마도상 의미

도상 호마	원형	4방형	반월형	삼각형
법식	식재	증익	경애	조복
의미	재해극복 병회복, 액운무사	장수, 수명장수, 상업번영, 학력증진	좋은결연, 부부화합, 은덕, 예정	공격,전쟁, 정쟁(政爭)
방향	→ 0, ▲	0 → +, ▲		0 → -, ▼
색	백(白)	황(黃)	적(赤)	흑(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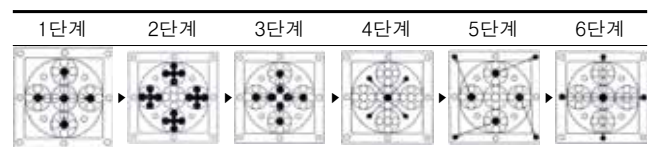
그림4. 만다라의 기본도형

라의 도상적 접근은 그 시대적 연관성으로 인하여 어려울 수도 있으나 만다라가 밀교의 교리적 해석에 의한 사상을 도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잡밀의 시대 역시 밀교사상에 의한 도상적 접근을 시도하였을 것이다. 특히 사천왕사는 다른 사찰보다 기하학적 접근이 용이한 배치를 하고 있다. 만다라적 도법은 우선 불교의 우주관 즉 수미산개념을 수평적, 또는 평면적으로 도상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수미산개념은 3단계의 공간구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수직적 공간구성을 의미한다. 수평적 공간구성도 수직과 마찬가지로 3가지의 공간을 모두 나타내는데, 이러한 공간을 나타내는 기하학적 도형의 기본은 모두 4가지로 원형, 사각형, 반월형, 삼각형의 4가지이다(그림4). 원형은 원만에서 나온 도형으로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다. 만다라라는 말이 범어로 형용사로 쓰일 때 원이란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원은 성스러운 세계를 말하기도 하며 또한 월륜관(月輪觀)이라는 밀교적 수행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방형은 4각의 안정적 도상을 의미하고 인도에서의 4라는 숫자의 의미도 매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사천왕과 사성제등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예이다. 반월은 불안정성을 내포하지만 전개 의미도 가지고 있다. 스투파의 5가지 기본 개념에서 반월은 상위층에 위치하면서도 방위는 북, 그리고 석가모니(불공성취불)를 의미하는 중요한 도형이다. 삼각형은 힘의 방향을 의미하며 인도밀교에서 상향의 삼각형은 남성으로 양근을 상징하는 시바신을 하향의 삼각형은 여근을 상징하는 우마를 상징한다. 이러한 삼각형의 조합을 안트라(yantra) 혹은 트리안트라(tri-yantra)라고 하는데, 이러한 삼각형의 조합은 공격성이 강한 이미지의 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4가지의 도상(표3)은 각종 기원의례를 하기 위한 호마(護摩)의 수법(밀교의례)을 행할 때 묘사되는 만다라의 윤곽으로 사용된다. 만다라에서 사용하는 도상은 주로 원형과 사각형으로 식재와 증익을 의미하는데 이들 식재(息災)와 증익(增益)은 치병, 장수, 번영 등 좋지 않은 상태를 좋게 만들거나 더욱더 좋은 결과를 위한 호마수법이다. 반월형은 경애(敬愛)로서 애인이나 부부 등 타인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한 증익의 일종이다. 삼각형은 만다라에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힌두적 밀교의 탄트라에서는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호마법으로 사용된다. 의미는 조복(調伏)으로 전쟁(戰爭)등에 사용하게 된다.²³⁾

3.3 만다라의 도상과 작용

밀교의 대일경과 금강정경을 근본으로 하여 그 교리를 도상으로 표현한 태장계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는 방위상 태장계는 동쪽에 서쪽에는 금강계를 두어 배치한다. 태장계는 여성이자 이(理)를 표방하고, 금강계는 남성이자 지(智)를 의미한다. 금강계는 중국, 일본과 함께 인도와 티베트에서도 나타난 만다라이다. 태장계가 의식에서 발전된 만다라라면 금강계는 유가행유식파(瑜伽行唯識派)의 인식론적 비의(秘儀)에 의한 실천철학의 체계로 발전한다²⁴⁾. 먼저 나타난 태장계만다라는 금강계만다라의 영향으로 그 자취가 점차 사라졌다²⁵⁾. 밀교가람에서의 적용은 이러한 실천적 수행체계로의 금강계만다라의 도상적 체계 분석을 따라야 하므로, 본고에서의 만다라의 도상분석은 금강계만다라의 해석을 기본으로 하겠다. 금강계만다라의 불과 불 또는 불과 보살, 보살과 보살과의 작용 및 생성은 아래의 도표(표4)와 같이 기본적으로 6단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금강계만다라가 생성될때까지의 6단계의 변화과정이며, 이러한 작용은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의 흐름을 만들어 불, 보살들에 의한 구제와 밀교의 수행에 의한 성(聖)적인 세계로의 이행(移行)을 의미하게 된다.²⁶⁾

표4. 금강계만다라의 전개과정 6단계(1단계-3단계)



4. 밀교교리와 도상의 가람적용

4.1 사천왕사에 나타난 밀교개념

(1) 사천왕사와 밀교의 우주론

삼각구도에 의한 밀교의 우주론개념은 밀교에서 나타난 만다라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기법이고 또한 밀교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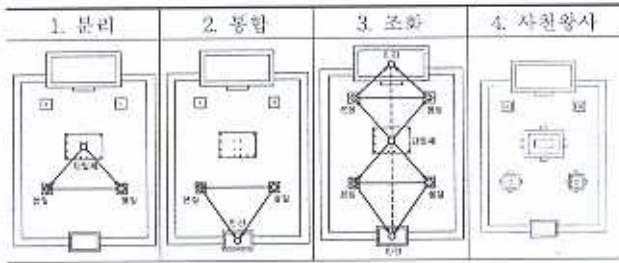
23) 홍윤식, 『만다라-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92, p.p. 30~38

24) 홍윤식, 앞의 책, p.p. 48~87

25) 김용환, 「만다라의 視覺形式과 靈性意味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1989), 서울대 종교학과 박논, p.p 4~5,

26) Adrian Snodgrass, 『THE SYMBOLISM OF THE STUPA』, Motilal Banarsidass publishes(India), 1992, p.p. 149~152

표5. Cosmos도상에 따른 사천왕사 분석표



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다. 다음은 밀교의 우주론사상을 사천왕사에 도입하여 기하학적 분석에 의한 사찰의 우주론적 개념 적용을 시도하고자 한다. 사찰의 기본적 개념은 불국 즉 부처가 기거하는 천상의 세계를 묘사했으므로 이러한 우주론의 기하학적 분석 적용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표5에서 단일체(Unity)가 의미하는 바는 천상의 세계로 불국 즉 부처의 위치와 존재를 말한다. 금당의 존재가 본질 즉 단일체이며 금당 앞에 존재하는 두 탑의 의미는 상징적 의미로서 불국과 천상의 세계를 연결해주고 부처의 세계를 보좌하는 역할로서의 사천왕 개념을 도입하여 본질(Essence)과 물질(Substance)의 세계를 묘사한다. 금당 배면의 두 개의 경루는 앞의 두 탑과 그 의미를 같이한다. 경진은 사리와 함께 부처를 보위하고 설명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인간 즉 현상세계와의 관계는 본질과 물질이 하나로 결합되어 나타내는 2차적 현상 즉 구심적 통일을 의미한다. 사천왕사에서 남문과 강당은 인간중심적 공간이다. 남문은 인간세계와 불계를 연결하는 게게체이고 강당은 인간이 성불하기 위한 강학 및 수행공간이다. 이는 일반신도가 부처가 되고, 승려가 부처가 되기 위한 공간이다. 세 번째의 그림은 인간이 부처를 만나고 부처가 되기 위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두 방향의 삼각도형은 두 인간이 같이 연결되는 단일체 곧 부처와의 단합을 상징한다. 하나가 둘로 나뉘면서 대립(분리)이 되지만 조화와 통일의 개념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회진적 윤회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밀교의 우주론은 사천왕사를 포함한 밀교계 2탑식 가람의 배치조형 개념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조형원리로 뒷받침되는 사실은 인도의 밀교적 우주론사상이 명당을 통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는 것을 이미 언급하였으며, 또 하나는 호마법에 의한 만다라적 도상법적용 등으로 알 수 있다.

(2) 조복(調伏)을 위한 호마도법

3.2절의 4가지 기본조형 원리들은 사찰의 배치에 스투파를 비롯하여 사찰의 배치의 기본적 도상이 되었다. 밀교의 수행방법중에 삼밀행 중에 신밀(身密)에 해당되는 인상법은 구밀 즉 다라니를 외우는 방법과 함께 가장 일반적인 밀교수행법이다. 인상법은 주로 수인(手印)에 의한 결인(結印)을 통하여 행하여지는데, 주로 만다라의 4가지 도형의 의미와 함께 사용하여 호마의식을 하게 된

다. 사천왕사와 감은사의 경우 그 창건 목적이 적파의 전쟁에 대한 승리 의지를 담은 조복호마를 위한 사찰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두 개의 탑과 금당, 혹은 두 개의 탑과 중문으로 이어진 도상은 조복을 위한 삼각구도의 응용이 적용된 사례라 생각된다(그림5). 즉 쌍탑과 금당사이 혹은 여러개의 삼각구도가 서로 만나는 금당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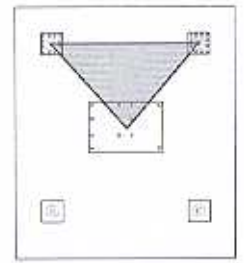


그림5. 사천왕사의 조복호마도형

결인(結印)과 다라니경(陀羅尼經)의 암송으로 행해지는 호마의식을 통하여 당과 왜에 대한 조복을 행하였을 것이다. 망덕사, 원원사와 같은 2탑식 가람의 경우 또한 창건배경 및 원인이 사천왕사와 같은 호국개념으로 발원하였고, 이들 가람에서의 호마법 시행이 여러 문헌에서 나타났음을 볼 때, 위와 같은 조복호마법의 시행에 따른 삼각구도의 배치개념을 형상화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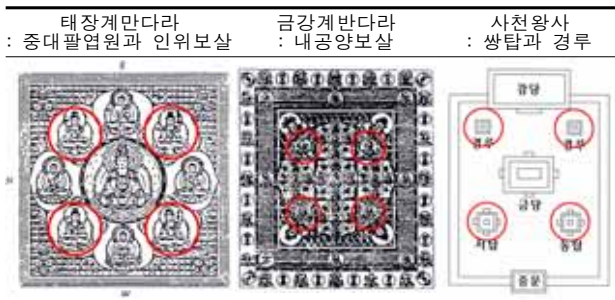
(3) 사천왕사의 배치구성 및 만다라

중국에서 만다라가 완성되는 시기는 순밀의 시기로 8세기에 이르지만 사천왕사의 시기는 7세기로 시기적 일치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만다라의 조성시기와 사천왕사의 건립시의 차이로 인한 관계설정 문제는 중국에서의 밀교 흐름을 보면 이해될 수 있다. 중국에서 만다라는 순밀의 고승들이 대일경과 금강경경을 지어 만들었지만, 이러한 순밀의 경전에는 잡밀의 여러 경전으로부터 영향이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5세기 동진시대에 지어진 관경경과 금광명경 등은 대일경과 금강경에서 보여지는 여러 밀교적 개념을 이미 포함하고 있었으며, 밀교적 의례행위 또한 이미 5세기의 경전에 나타나 있었다. 이들 두 밀교의 차이로는 잡밀의 경우 의례행위 중심인데 반하여, 순밀의 경우에는 경전의 확립에 따른 교리적 수행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잡밀시기의 만다라적 표현의 예로는 3.2절에서 보인바와 같이 초기의 만다라는 이미 인도에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도상의 발전은 이미 사천왕사가 세워지기 이전인 동진시대²⁷⁾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천왕사를 조성한 명량법사가 나타나기 전에 지장(慈藏)²⁸⁾을 통한 오대산 신앙의 도입등으로 이미 만다라가 생성되기 이전의 만다라적 밀교사상이 신라에 전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천왕사의 5방신과 만다라의 5부5방의 개념과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태창계 만다라에서는 중대 팔엽원에서 중앙, 동, 서, 남, 북의 부처를 중심으로 대각

27) 이미 동진시대에는 밀교승들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백지리밀다라 이외에 운강석굴을 조성한 담요도 밀교승으로 알려져 있다. 운강석굴의 조각을 통한 불상 및 조각은 초기 밀교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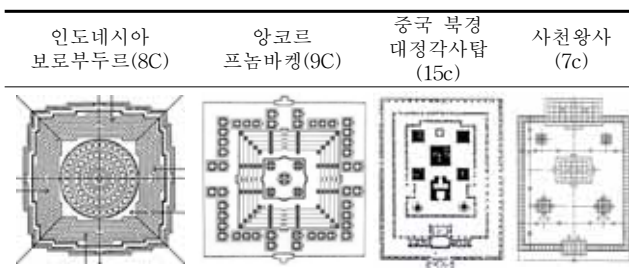
28) 자장과 명량과의 관계를 보면 명량의 어머니는 남간부인(南獨夫人)으로 자장의 누이이다. 곧 자장과 명량은 3촌 관계로 진골의 귀족출신이다.

표6. 만다라의 보살공양 도상과 사천왕사의 배치비교



선의 방위에 각 보살들을 배치함으로 각각 4방위의 부처를 보위하여 실천하는 보살들이 배치하게 된다. 이러한 배치도 부처를 중심으로 각각 북동, 동남, 남서, 서북의 4방위에 보살들로 하여 불국의 이상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사천왕사의 불전을 중심으로 하는 2기의 목탑과 2기의 경루는 이러한 사천왕사의 밀교적 성격과 일맥상통하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표6). 중국에서 밀교의 만다라적 배치를 하고 있는 예는 라마탑의 건립과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부다가야에 있는 금강보좌탑의 영향으로 나타난 북경의 여러 밀교탑의 예(표7의 대정각사탑)를 들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불교사원에서 8C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사원과 9C 캄보디아의 앙코르사원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표7). 이러한 사원들을 통해본 특징은 밀교적 특성을 가진 사원에서 보여지는 만다라적 배치유형이 북경과 동남아시아에서는 8C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사천왕사에서는 이들보다 이른 7C에 이미 나타났으며, 이는 신라의 밀교적 특성이 매우 이른 시기에 발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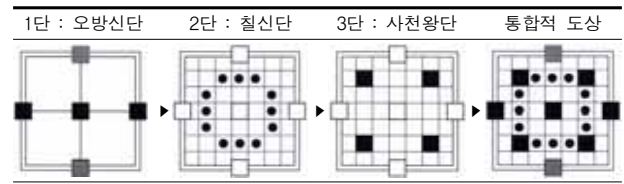
표7. 만다라적 배치개념의 사원과 사천왕사



4.2 문두루작도법에 의한 사천왕사의 배치계획

사천왕사에서 행한 명랑법사의 주술은 문두루(文豆婁) 법이라하는 신인기법이다. 문두루에 대한 내용은 관정경(灌頂經)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 사천왕사에서 행한 주술적 기법에 대하여 보면 “...『以彩帛假構矣。』王以彩帛營寺，草構五方神像，以瑜珈明僧十二員，<明朗>爲上首，作<文豆婁>秘密之法。...중략...，名<四天王寺>，至今不墜壇席。”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것을 해석하여 보면 “여러 가지 빛의 비단으로 절을 가설(假設)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채색 비단으로 임시로 절을 만들고 풀[草]로 오방(五方)의 신상(神像)을 만들었다. 그리

표8. 관정경에 따른 사천왕사의 도상해석



고 유가(瑜伽)의 명승(明僧) 열두 명으로 하여금 명랑을 우두머리로 하여 문두루(文豆婁)의 비밀한 법(法)을 쓰게 했다. ...중략... 그 후에 절을 고쳐 짓고 사천왕사(四天王寺)라 하여 지금까지 단석(壇席)이 없어지지 않았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두루법에 관한 경전으로는 동진시대(317~420) 인도승인 백시리밀다라(帛尸梨蜜多羅)가 해석한 『불설관정복마봉인대신주경(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에서 第7經을 보면 문두루에 대한 의미와 작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수법의 내용은 제1단: 오방신단(五方神段)에서 신인(神印)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장애를 제거하고, 제2단: 칠신단(七神段)에서 수행자와 도량을 정화, 제3단: 사천왕단(四天王段)에서 도량을 결인하며, 제4단: 칠불단(七佛段)에서 부처님의 가피로 정법의 도로 들어간다. 사천왕사의 문두루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고 또한 공격하여 물리치는 성격이므로 제1단의 오방신으로 하여금 적을 퇴치하고 제3단의 사천왕단으로 국토를 수호하는 방법으로 문두루법을 시행하였을 것이다²⁹⁾. 이 해석을 따라 사천왕사를 분석해 보면 비단으로 절을 만들었다 함은 사찰의 경계 즉 회랑을 의미하는데 여러 가지 색의 의미는 각 방위별의 색을 의미한다. 비단으로 사찰의 경계를 만든 다음 5방신을 풀로 만들어 문두루의 1단인 5방신단을 만든다. 『불설관정복마봉인대신주경(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에서는 부처가 5방신을 만든 후 제석천에게 중흥으로 7등분하여 문두루형(文豆婁形)을 만드는데 이것이 2단인 칠신단의 모습이다. 그 후 3단인 사천왕이 이 사택³⁰⁾의 화를 보호하고 있다. 바로 현재의 사천왕사는 앞의 관정경의 해석 순에 따라 사찰을 지어 나라를 보호하던 것이다(표8).

5. 사천왕사의 밀교적 특성

밀교의 만다라에 나타나는 공간체계의 특성과 사천왕사의 배치구성과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5.1 중심성

태장계와 금강계만다라의 중심영역의 구성은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공양보살이 보위하는 중심성을 매우 강조하여 나타난다. 사천왕사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나타났던 탑

29) 허일범, 「한국밀교의 특성과 만다라-회당사상과 밀교」, 당회논문집, 2002. p.245

30) 문두루를 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집안의 화를 막는데 쓰인 밀교주술방법이다. 여기서의 사택(舍宅)은 집을 의미하지만 사천왕사에서의 사택은 신라를 의미할 것이다.

과 금당과의 관계, 즉 사리신앙과 불상의 관계에 따른 두 영역이 강조되었던 구성이 불(佛)의 금당을 중심으로 앞의 두기의 탑과 뒤의 두 경전을 배치함으로 불전 중심의 중심적 배치구성을 보이고 있다.

5.2 대칭성

만다라의 배치구성은 완벽한 전·후, 좌·우의 대칭적 배치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밀교교리에 따른 비라자나불의 사상적 배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데, 사천왕사 또한 금당을 중심으로 좌·우 즉, 서탑과 동탑, 좌경루와 우경루의 대칭(A·B), 전·후 즉, 탑과 경루와의 대칭(A'·B')이 만다라에서 보이고 있는 대칭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5.3 다중성

사천왕사의 이전의 가람 배치는 탑과 금당의 단일 건물에 의한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사천왕사는 전과 다르게 탑도 2기가 배치가 되고, 경루도 2기가 배치되어 단일공간 즉, 하나의 원(院)에 여러 기능의 건물이 조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다중적 배치개념은 3.3절의 표4와 같이 만다라의 불과 보살과의 관계로서 알 수 있게 된다.

5.4 위계성

사천왕사에서는 금당, 탑과 경루, 강당과 중문의 중심공간에 이르는 위계가 명확하여, 불전에 이르는 단계적 접근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구성은 한국가람에서 보이는 불, 보살, 신중 3단의 공간구성의 모습과 같다. 또한 만다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불, 보살, 경계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다.

6. 결론

통일신라시대는 교종과 선종이 대립되던 시기로 밀교는 두 사상에 많은 영향을 준 사상이다. 밀교사찰인 사천왕사의 조영원리는 밀교의 우주관을 조형한 것으로, 우주의 수직적 공간체계를 평면적으로 전개하였고, 가람을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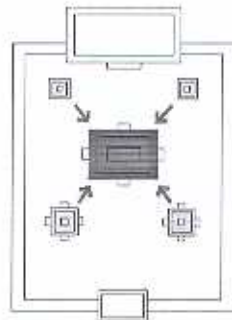


그림6. 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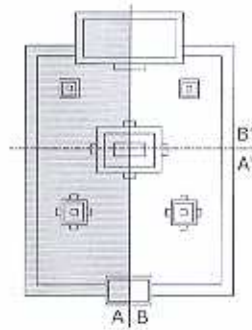


그림7. 대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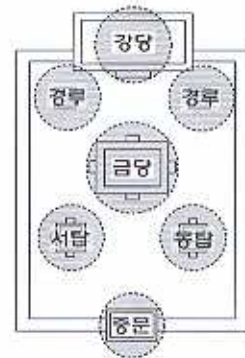


그림8. 다중성



그림9. 위계성

성한 기법은 밀교의 도상인 만다라의 생성원리와 구성체계와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이에 밀교의 개념과 교리를 기준으로 가람의 전각 및 탑의 구성을 하였음을 다음의 5가지의 특징으로 알 수 있다.

1. 밀교의 만다라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관은 단일체(또는 인간), 본질, 물질의 삼각구조에 의해 관계되며 이러한 삼각구조가 분리와 통일에 의한 조화의 개념이 적용되어 2탑식가람의 금당과 탑, 중문과 금당, 경루와 강당의 관계로서 불교의 우주론이 가람의 공간구성원리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밀교수행법인 호마법에서 조복(調伏)을 행할 시의 도상이 삼각구조로 공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천왕사의 조영목적은 당과의 대칭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호마법의 시행을 위한 배치로 탑과 금당, 경루의 삼각관계로서 설정되어진다.
3. 만다라의 주불에 대한 공양보살과의 관계는 사천왕사에서 보이는 쌍탑과 두 경루에서 보이는 배치와 일치하며 후에 중국과 동남아에서 보이는 금강대좌탑과 같은 밀교계 가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 삼국유사에서 문두루법의 경우 사천왕사의 배치개념을 알 수 있는 밀교수법으로 그에 대한 해설은 관점경에 나오는 문두루적도법과 그 실행순서와 방법이 일치하여 사천왕사의 배치개념이 밀교에 의한 호국사찰로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만다라 도상에서 보이지는 공간구성 체계인 중심성, 대칭성, 다중성, 위계성 등의 특징이 사천왕사의 배치구성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사천왕사가 밀교가람으로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1. 김상태, 박인근(2003), 7·8세기 동아시아 2탑식 가람의 생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36,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2. 허일범(2002), 한국밀교의 특성과 만다라, 회당사상과 밀교, 회당학회논문집
3. 김성우(1999), 통일신라시대 불교건축의 변화, 건축역사연구 2,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4. 박인근(1998), 한국건축사강론, 문운당
5. 홍윤식(1996), 만다라-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6. 서울길(1994), 한국밀교사상사연구, 불광출판부,
7. Adrian Snodgrass(1992), THE SYMBOLISM OF THE STUPA, Motilal Banarsidass publishes(India)
8. 요미토미, 김무생譯(1990), 밀교의 역사와 문화, 민족사
9. 김봉렬(1989),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 건축학 박논
10. 김용환(1989), 만다라의 視覺形式과 靈性意味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논
11.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1986), 한국밀교사상연구, 농원문화사
12. 尸戶梨蜜多羅(4세기), 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 第7經 (接受: 2003. 7. 3)